

200자 안내

여성과 정신건강

정동철 저

정신과 전문의인 정동철교수(서울대)가 20여년간의 임상체험을 바탕으로 쓴 여성 정신건강에 관한 글. '정신건강의 의미' '시집과 친정 사이에서' '독신여성, 자랑스런 용기런가' '정신건강 그 마지막 얘기' 등 여성만이 갖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기린원 / B6변형 / 208면 / 2500원

여운형

이기형 저

해방 직후의 급박한 전환기에 자주정부 수립과 민족통일을 위해 분투하다 암살당한 여운형씨의 일대기. 출생과 성장, 상해에서의 활동, 민족해방운동,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미군정과 좌우합작운동 등 그의 위대한 생애를 엿볼 수 있다.

창작사 / B6 / 276면 / 2000원

正義를 잇은 男女

鄭璟喜 저

한국일보 논설위원 정경희씨의 칼럼집. 제 1부 「여자란 무엇인가?」 제 2부 「뽕밭질하는 사람들」로 나누어, 전환기에 서 있는 우리 사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그것을 떠받들고 있는 '여자'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글 80여편을 수록했다.

大學出版社 / A5신 / 344면 / 3500원

神話

K.K.Ruthven 저 / 金明烈 역

문학비평총서 27. 「The Critical Idiom Series」를 번역했다. 문학비평을 이론이나 역사의 한정된 관점에서 다룬 연구서가 아니라, 실제로 문학비평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를 문학창조 및 비평활동의 현장 가운데서 고찰함으로써 그것의 역사적·비평적 의미를 정확히 정의하고자 시도된 책이다.

서울대학교출판부 / B6 / 130면 / 1000원

나의 칼 나의 피

金南柱 작 / 고은, 양성우 편

80년대 가장 전형적인 민중시인의 한사람인 김남주씨의 신작시집. 84년에 출간된 「鎮魂歌」에 이은 두번째 시집이다. 「쓰다 만 시」 「희망에 대하여」 「아직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 등 80여편의 시 속에 '시와 이땅의 민주화와 인간다운 세계의 건설'이라는 작가의 꿈이 가득 실려 있다.

인동 / B6변형 / 188면 / 2000원

템즈강변의 戀人

케네드 하퍼 작 / 李龍 역

영국의 마지막 사형수였던 루스 엘리스의 러브 스토리. 런던 시내의 작은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이었던 그녀가 부유한 자동차 경주선수 데이비드 블레이크리를 만나 사랑하고, 결국 그의 머리에 네 발의 총알을 발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극명하게 묘사했다.

홍익출판사 / A5신 / 298면 / 3000원

魔의 눈 · 사랑의 요정

조르즈 상드 작 / 이재희 역

조르즈 상드의 소설 두편을 묶은 책. 아름다운 牧歌의 세계, 농촌을 배경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고뇌와 갈등, 행복에의 기도가 섬세하게 그려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조르즈 상드 연구로 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외국어대 이재희 교수가 번역했다.

우아당 / A5신 / 344면 / 3500원

라홀라

방귀희 작

본격 불교소설. 치열한 구도의 길목에서 번민하는 젊은 스님 부운, 그의 열반을 지키는 '나이팅게일' 도영,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알고 삶을 저주하는 석환, 그들이 제각기 삶의 캔버스에 그리는 자화상이 잘 나타나 있다. 저자는 대한불교 조계종 중상상임포교사. 밀알 / A5신 / 290면 / 3000원

意識心理學

Robert E. Ornstein 저 / 李奉鍵 역

意識에 대한 교재로 초보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연구결과 및 이론을 소개하기 위한 입문서. 서양의 과학적, 분석적 접근과 동양의 신비적, 총체적 접근을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하여 양 접근방법에 대한 새로운 완성 및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星苑社 / B5 / 276면 / 4500원

길은 나를 부르며

조병화 작

「외로운 혼자들」에 이은 저자의 31번째 시

집. 30집에 실리지 않은 인도 마드라스 기행시 나머지와 그 이후 플로렌스, 로테르담, 일본의 노도지마를 여행하면서 쓴 시와 그림, 그리고 국내에서 쓴 모든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

청하 / A5신 / 184면 / 2500원

한국의 무형문화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기획

「한국의 문화공간」 시리즈 세번째 책.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공예기술, 음식과 무예, 한국의 전통마을 중의 무형문화재를 사진과 함께 설명했다. 목록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점이 이 책의 특징.

정음사 / B6변형 / 106면 / 2000원

초대교회사

유스토 L. 곤잘레스 저 / 서영일 역

원제는 「The Story of Christianity」. 제 3세계 출신인 저자는 간결하고도 명확한 문체로 교회의 역사, 신앙 속에서 살았던 인간들의 행동과 사상을 얘기한다. 이 책은 역사 전공생, 신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목회자와 신자들에게도 도움을 준다.

은성 / A5신 / 368면 / 4500원

예수라는 이름의 신화

B.S. 라즈니쉬 저 / 류시화 역

1975년 10월21일부터 11월10일까지 인도의 성자 브하그와난 쉬리 라즈니쉬가 인도의 푸나에서 제자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엮은 책. 그의 성경 강의 시리즈 4권 중 1,2권의 번역본이다. 라즈니쉬가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시각으로 기독교를 설명했는가 상세히 적혀 있다.

청하 / A5신 / 334면 / 3500원

잇을 수 없는 스승들

조선일보사 출판국 편

83년 한해 동안 「주간조선」에 소개된 '잇을 수 없는 인물들' 46편 중 24편을 책으로 묶었다. 柳永模(김홍호), 朴術音(이상준), 吳之湖(문순태), 張俊河(유경환), 趙芝薰(오탁번) 등 제자 24명이 추억, 에피소드를 통해 은사를 소개한다. 「한 시대의 이단자들」의 개정판.

朝鮮日報社 / A5신 / 340면 / 3500원

동물 대상 기법

J.Hamm 저 / 이일남 역

갖가지 동물들의 대상 기법을 엮은 책. 사냥개, 고양이, 곰, 말과 등 여러 동물들을 부분별로 나누어 대상 방법을 자세히 수록했다. 또 각 동물들의 부위별 차이점, 행동에 따른 모습 변화 등을 다양하게 실어 동물을 그

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려문화사 / B5 / 120면 / 4000원

株 실전 노우하우집

아시아오지프로오 저 / 신경애 역

초보자를 위한 株의 실전 노하우집. 주식투자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으나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여러가지 의문이 생기거나 판단이 잘 안서는 투자자들을 위한 가이드. 주식사는데에서부터 실전 테크닉에 관한 모든 방법과 주가차트, 신용거래 등 기술적인 면까지 설명하고 있다.

韓國經濟評論社 / A5신 / 236면 / 4500원

經營管理論

任翊淳, 蘇令一 저

경영활동을 계획수립, 조직화 및 충원, 지휘, 통제의 네가지 관리기능으로 구분하여 전개시킨 경영관리론. 경영관리론의 체계 안에 각론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설명했으며, 각장마다 예시사례와 사례연구를 제시하여 경영학 전반을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했다.

박영사 / B5 / 564면 / 8500원

權力

버트란트 러셀 저 / 안정효 역

영국의 세계적인 석학 버트란트 러셀의 「Power-A New Social Analysis」의 번역판. 전반부에서는 인간의 원초적인 권력에의 충동, 성직자의 권력, 왕권, 원시적인 권력 등 권력의 형태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후반에서는 권력의 이념, 도덕률, 철학, 윤리 등을 철학적인 관점,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열린책들 / A5신 / 276면 / 3200원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벤자민 프랭클린 저 / 최혁순 역

가난한 인쇄공 출신으로, 늘 근면함과 노력하는 자세로 사람들의 신망을 얻음으로써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의 자서전. 함께 수록된 격언집 「富에 이르는 길」과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도 인생의 지침과 지혜를 제공한다.

乙支出版社 / A5신 / 400면 / 4000원

하늘은 끝내 침묵을 지키는 것인가

三浦綾子 작 / 김경순 역

「빙점」으로 국내 독자들에게 친숙한 미우라 아야코의 장편소설.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온 다꾸이찌와 고우사구 형제는 돌연한 화산폭발로 집도 학교도 사랑도 꿈도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린다. 하늘은 왜 성실하게 살

아가는 이들에게 잔인한 시련을 주는가?라는 의문을 추적한 작품이다.

祐成出版社 / A5신 / 366면 / 3300원

해모수

윤명철 저

한민족의 일본 도래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1982년과 1983년, 뗏목 해모수호를 타고 대한해협을 탐사한 윤명철씨의 역사 탐험기. 거제도출발하여, 큐우슈우의 서쪽 고평열도에 도착하기까지 탐험대가 겪어야 했던 갖가지 고난과 강한 역사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松山出版社 / A5신 / 258면 / 2800원

Illustration Perspective

편집부 편

건축가, 그래픽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경사들을 위한 투시도 및 모형제작법 안내서. 테크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풍부한 실례와 도면을 이용해 설명했다. 투시도의 기본도법과 간략도법, 질감 및 색채 표현기법, 각종 모형의 제작방법 등을 자세히 수록.

國際 / A4 / 338면 / 15000원

主要國의 教育改革動向

辛世浩, 金永哲 편저

1980년에 들어서면서 세계각국은 경쟁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럽 각국의 교육개혁동향을 분석한 이 책은, 21세기에 대처하기 위해 변모를 꾀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교육의식을 파헤침으로써 우리의 교육현실에 맞는 새로운 개혁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민족문화보존간행회 / A5신 / 386면 / 11300원

예수의 어머니

후안 알파로 외 공저 / 허종렬 역

세 사람의 필자들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본 성모 마리아의 모습. 제1부에서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마리아론, 제2부에서는 성모성심공경의 역사적 배경을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살폈으며, 제3부에는 세계의 현실을 감안한 새로운 9일기도를 수록했다.

가톨릭출판사 / A5 / 112면 / 1200원

최후의 인간

아더 C. 클라크 작 / 全東民 역

아더 C. 클라크는 「서기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등의 작품으로 국내 독자들에게 친숙한 세계적인 SF작가이다. 1953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그의 출세작인 동시에 SF 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진화의 다음 단계에 이른 미래인간의 모습, 선악의 두 갈래로

발휘되는 초능력 등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모음사 / A5신 / 290면 / 3000원

大盜 조세형

안광수 저

‘大盜’이라는 호칭으로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조세형의 범죄비화. 그는 제3의 인물과 함께 세계 박물관에 비치된 보석을 털기 위한 공작금을 마련하고자 국내에서 3개월간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비롯 63억원 상당의 보석을 털었다고 하는데, 저자는 이 ‘제3의 인물’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주장한다.

日善企劃 / A5신 / 284면 / 3000원

進化論的 經濟學

데이비드 해밀턴 저 / 黃義珏 역

경제학은 인간사상의 한 부분이며, 모든 문화적 산물과 마찬가지로 무한히 변화하는 사회과정의 한 반영이다. 저자는 경제적 변화의 본질을 단순한 기계적, 정태적인 운동보다는 진화론적 발전의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경제과학의 성질과 범위를 보다 넓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 책에는 「진화론적 경제학」과 「경제사상의 발전」 두 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중앙경제사 / A5신 / 360면 16000원

상부구조론

E.Y. 그레젤만 저 / 편집실 역

변증법, 사적유물론 철학의 이론가인 그레젤만의 연구서. 저자는 이 책에서 상부구조를 경제적 토대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그와 동시에 경제적 토대의 발전에 있어 상부구조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토대와 상부구조론에 관한 이론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적절히 설명했다. 학민글밭 37.

학민사 / A5신 / 210면 / 2700원



이색출판

版画世界

한운성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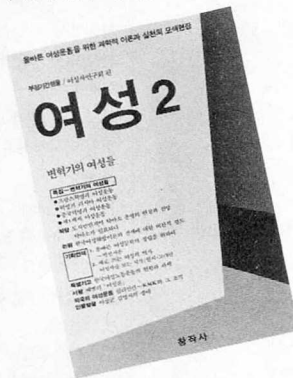


광범한 복제 가능성과 특이한 표현효과로, 현대미술의 가장 각광받는 장르로 자리 잡고 있는 판화의 실제적 기법을 친절히 해설한 「版畫世界」가 발간됐다.

무크

여성 2

여성사연구회 편



‘올바른 여성운동을 위한 과학적 이론과 실천의 모색현장’을 표방하는 부정기간행물 「여성」 제2집이 발간됐다.

제2집에서는 해외 여성운동의 사례를 중

목판화를 비롯해 동판화, 석판화, 실크스크린에 걸쳐 각 부문마다 판화제작에 필요한 준비물과 제작과정을 도표 및 사진으로 보이고, 학생들의 습작과 국내외 현대판화가들의 작품을 예로 들어 판화기법의 완벽한 습득에 충실을 기했다.

원래는 1978년에 초판이 나온 것을 석판화와 실크스크린 부문을 보장하여 10년만에 개정판 책으로, 서울대 서양화과 교수로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저자의 교육체험이 반영돼 실기교재로 특히 유용하다. 판화에 대한 최근의 집중하는 관심에 부응하는, 판화기법의 확립에 적절한 도움을 주는 책이다.

부록으로는 「넘버링」「오리지널 판화의 정의」 및 참고문헌을 실었다.

미진사 / A4 / 172면 / 8000원

점적으로 다룬 ‘변혁기의 여성들’을 특집으로 꾸며, 프랑스·러시아·중국혁명의 여성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필리핀 여성운동의 조직을 이해할 수 있는 「KMK와 그 조직」도 같이 수록됐다.

2집에서 새로 시작하는 기획연재물로는 「올바른 여성문학의 정립을 위하여」와 「새로 쓰는 여성의 역사」를 실었다. 특히, 전자는 김경연 등 4명의 공동집필로 인기여류작가 박완서의 문학이 갖는 한계를 여성해방운동의 관점 아래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어 논쟁적이다.

그밖에도 도시빈민지역에서의 탁아소의 필요성을 지적한 토론기사 등을 실어, 여성문제가 계급 및 민족문제를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했다.

創作社 / A5신 / 368면 / 3800원

화제의책

영원한 만남의 기도

김영채 편



국내의 위인 및 성직자, 문인들이 쓴 기도문과 기도시 172편을 모은 「영원한 만남의 기도」가 서점경영인의 손으로 엮어져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서울 종로2가에서 소규모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편자 김영채씨가 10여년간 라디오에서 신간안내 방송을 하며 수집한 글들을 모은 이 책은 기획, 편집, 제작의 전 과정이 김영채씨 개인의 손으로만 이루어진 점이 특히 이채롭다.

한경직, 조용기 목사 등의 성직자, 김현승, 구상, 김남조, 황금찬 등의 시인, 그리고 맥아더, 타고르, 존 버넌 등 외국인의 기도문(시)을 모두 4부로 나누어 묶었다. 신앙인뿐 아니라 일반독자에게도 기도의 소중함과 거기에 깃든 삶에의 경건한 자세를 되새기게 하는 유익한 책이라 할 만하다. 특히, 단순한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기도가 갖는 종교적 자세의 본질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글들이 많이 수록됐다.

삼일서적 / A5신 / 318면 / 3000원